

1만원대 핵심 보장만 담은 ‘미니보험’ 붐물

보험업계 생활밀착·저비용 내세워
불필요한 담보 빼고 핵심 보장
롯데손보 ‘간병’, 농협 ‘통풍’ 보장
동양생명 ‘교통재해’ 대응 상품도



Chat GPT가 생성한 저비용 미니보험 이미지.

한 달 보험료가 1만원 안팎인 미니보험 출시가 잇따르고 있다. 보험사들이 불필요한 보장은 빼고 핵심 위험만 묶어 ‘생활밀착·저비용’ 수요를 공략하고 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은 생활밀착형 보험 플랫폼 ‘앨리스’를 통해 ‘포미(FOR ME) 간병보험’을 선보였다. 불필요한 특약을 덜고 간병담보만 모아 40세 기준 남성 9300원, 여성 1만100원으로 보험료를 1만원 수준으로 낮췄다.

해당 상품은 ▲간병인 사용 시 하루 최대 10만원 ▲상급 종합병원 1인실 입원 시 최대 30만원 ▲중환자실 입원 시 하루 최대 30만원 등을 보장한다.

특히 모바일 채널(CM채널)에서 처

음으로 ‘장기요양자금’ 특약을 포함했다. 특약 가입 시 ▲노인성 질병으로 인한 장기요양등급 1등급 판정 시 최대 3000만원 ▲치매로 인한 장기요양등급 5급 판정 시 500만원을 보장한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간병 보장만을 담아 1만원 대의 보험료로 핵심 보장을 누릴 수 있는 가성비까지 갖춘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NH농협생명은 통풍·대상포진을 동시에 보장하는 ‘면역소속NHe통풍대상포진보험’을 출시했다. 최근 20~40대

에 높은 발병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통풍·대상포진의 담보를 분리하고 소액으로 가입가능한 미니보험을 내놓은 것.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대상포진 환자 수는 75만 7539명으로 전년 대비 6.4% 늘어났다. 이 가운데 2030대 환자 수는 12만 3660명으로 꾸준히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해당 상품은 통풍과 대상포진 진단 시 20만원의 진단금을 각각 지급한다. 보장기간은 1년과 3년 중 선택할 수 있다. 보험료는 30세·1년 만기·아침밥 먹기 약속 할인 적용 시 남성 5415원, 여성 3515원 수준이다.

NH농협생명은 “ESG 가치를 반영해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약속 시 보험료 할인 및 NH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며 “아침밥 먹기” 약속 시 보험료의 5%를 즉시 할인하고 ‘프리사이클링’ 약속 시 1년 상당 보험료의 10%를 NH포인트로 적립할 수 있다”고 설명

했다.

동양생명은 교통재해·사고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미니교통재해보험’을 내놓았다. 앞서 동양생명은 지난 12월 ‘미니독감보험’과 함께 미니보험 전용 ‘원스탑 플랫폼’도 선보이면서 미니보험 시장 활성화에 나선 바 있다.

이번 상품은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해 진료를 받는 경우 1회당 10만원, ‘재해골절(치아과절 포함)’ 진단 시에도 10만원을 보장한다. 교통사고 중 상해로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할 경우 100만원을 보장한다.

보험기간은 1년 만기로 일시납 구조로 보험료는 전 연령 기준 1000원대부터 최대 4000원 수준이다.

동양생명은 “단순한 보장구조와 합리적인 보험료로 누구나 손쉽게 준비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일상 속 교통재해·사고 위험에 대한 현실적인 대비를 하고 싶은 고객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보험 브리핑

삼성화재

손보 우수인증설계사 3명 중 1명 ‘삼성화재’

삼성화재는 2025년 손해보험 우수인증설계사 선발 결과 총 5197명의 우수인증설계사를 배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손해보험 업계 중 최다 인원으로 손해보험 우수인증설계사 3명 중 1명은 삼성화재 소속이다.

손해보험 우수인증설계사로 선발되기 위해선 한 회사에서 3년 이상 꾸준히 활동하고 보험모집 실적이 우수해야 한다. 모집한 보험계약의 13·25회차 유지율이 각각 90·80% 이상이면서 불완전판매가 단 한 건도 없어야 한다.

삼성화재는 우수인증설계사 배출을 위해 설계사들이 체계적인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설계사 전용 시스템인 ‘나의 고객자산 가치’를 통해 고객 및 계약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NH농협손해보험

24/365 디지털 청구 서비스 적용대상 확대

NH농협손해보험은 고객 경험 혁신을 위해 ‘24/365 디지털 보험금 청구 서비스’의 적용 대상을 모든 보험 상품으로 확대했다고 12일 밝혔다.

24/365 디지털 보험금 청구 서비스는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 연중무휴 24시간 이용 가능한 비대면 서비스다. 기존에는 질병·상해 보험 등 일부 상품에 적용됐으나 이번 확대를 통해 화재·농기계·가축 등 모든 상품으로 서비스 범위를 넓혔다.

서비스 확대는 최근 도입한 AI 기반 ‘보험금 자동심사 시스템’과 연계된다. 고객은 언제든지 디지털 방식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AI가 제출된 서류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간단한 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즉시 지급한다.

교보생명

무디스 신용등급 평가 11년 연속 ‘A1’ 부여

교보생명은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로부터 ‘A1(안정적·Stable)’ 신용등급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15년 국내 생보사 중 처음으로 A1등급을 받은 후 11년 연속 유지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보험사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 리스크 관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보험금지급능력평가(Insurer Financial Strength Rating, IFSR)’다. 무디스는 A1등급을 부여한 주요 요인으로 ▲우수한 영업력 ▲양호한 자본적정성 ▲안정적인 수익성 등을 꼽았다.

교보생명은 지난 3월에도 피치(Fitch Ratings)로부터 업계 최고 수준인 ‘A+(안정적·Stable)’ 신용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김주형 기자 gh471@

금융 디지털 장벽 허문다… 은행 ‘2세대 혁신’ 속도전

비대면 넘어 업무 전반 디지털화 AI·SaaS 도입·은행간 협업 활발

국내 은행들이 ‘2세대’ 디지털 혁신에 속도를 낸다. 송금·입출금·계좌개설 등 비대면 은행 업무에 주안점을 둔 ‘1세대’ 디지털 금융에서 더 나아가, 업무 효율 개선 및 비은행 서비스까지 디지털 금융의 영역을 확대한다는 목표다. 업무의 디지털화로 개별 은행 간에 장벽도 허물어지면서, 은행 간 협업도 활성화됐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은행들은 업무 내 인공지능(AI) 활용, 외부 소프트웨어 도입, 은행 간 연계상품 출시 등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은행들이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하면서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금융 거래가 활성화된 가운데, 상담을 비롯한 각종 고객 서비스 및 비은행 업무로도 디지털 금융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각 은행이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는 것은 금융당국이 ‘망 분리’를 비롯한 규제에 예의를 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디지털 전환을 독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대규모 전산 마비를 계기로 도입된 ‘망 분리’는 은행의 전산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은행의 보안 수준을 크게 끌어 올렸지만, 디지털 역량을 저해하는 족쇄가 됐다.

2010년대 말부터 소프트웨어 시장의 주류는 ‘자체 구축’에서 ‘구독형(SaaS)’으로 이동했다. 각종 시스템 개발에 자체적인 비용을 들이는 대신, 특정 업무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구매해 사용하게 된 것. 그러나 ‘망 분리’가 적용된 금융기관은 구독형 프로그램의 사용이 불가했고, 이는 금융기관의 비용 비효율성과 디지털 경쟁력 저하로 이어졌다.

금융당국은 타 산업과 비교한 금융산업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3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를 도입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서비스에 대해 기존 규제에 예외를 두는 내용이다. 현재까지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691건으로, 이 가운데 실제 출시된 서비스도 278건에 달한다.

망 분리에 예외를 허용하면서, 은행들은 기존에는 이용이 어려웠던 화상회의, 디지털 문서 공동작업, 외부 솔루션을 활용한 업무 간소화가 가능해졌다. 은행 간 협업도 활성화됐다. 카카오뱅크는 광주은행과 ‘공동대출’ 상품을 출시해 대출 심사 및 약정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토스뱅크도 전북은행 및 경남은행과의 공동대출 상품을 준비 중이다.

‘생성형 챗봇’을 비롯한 인공지능(AI)의 활용도 본격화하고 있다.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 이미 고객 상담과 금융 계약 검토에 생성형 AI를 활용해 업무 효율을 개선했고,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도 자사 앱 내 상품 비교 서비스와 대출 심사 과정에 AI를 도

입했다. 은행권의 주요 화두로 부상한 ‘내부통제’ 분야에도 AI를 도입하는 은행도 늘고 있다.

디지털 혁신이 본격화하면서 금융 정보 및 기능 개방도 진행형이다. 국내 주요 은행 19곳은 모두 금융결제원과 ‘오픈뱅킹 협약’에 따라 표준화된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공개했다. 신규 핀테크 기업이 앱 개발 시 개별 은행과의 업무 협약 없이도 각 사의 금융 거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국내 핀테크 기업의 개발 환경을 개선한다는 목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신기술의 보급에도 국내 금융기관들은 엄격한 인허가제도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라면서 “최근 망 분리 예외 인정을 비롯해 기존 규제가 완화되는 움직임 만큼, 디지털 전환에 다시 속도를 내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

서울 아파트값 19주 연속 오름세

래미안옥수리버전 한달새 2.5억↑
매매수급지수 101.7… 5주째 올라

서울 아파트값이 19주 연속 상승했다. 매매수급지수도 5주째 올랐다.

1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둘째 주(9일 기준)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6% 상승하며 19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권역별로 보면 성동구(0.26%→0.47%)는 옥수·행당동, 용산구(0.29%→0.43%)는 이촌·도원동, 마포구(0.30%→0.45%)도 아현·도화동 주요단

지, 광진구(0.15%→0.17%)는 광장·구의동, 종로구(0.04%→0.17%)는 평·홍파동 준신축 위주로 상승세를 보였다.

강남권의 경우 송파구(0.50%→0.71%)는 잠실·신천동 선호단지, 강남구(0.40%→0.51%)는 대치·압구정동 재건축 추진 단지, 서초구(0.42%→0.45%)는 반포·잠원동, 강동구(0.32%→0.50%)는 고덕·명일동, 동작구(0.00%→0.39%)는 흑석·상도동 위주로 상승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성동구 옥수동 래미안옥수리버전 전용 84㎡는 지난달 23억5000만원에



서울 시내 아파트.

/뉴시스

거래되며 1개월 전과 비교해 2억5000만원 올랐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59㎡ 역시 지난달 24억5000만원에 거래돼 전월 대비 1억원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1.7을 기록해 전주(100.2)보다 올랐다. 매매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0에 가

까울수록 매도자가 많고, 200에 가까울수록 매수자가 많은 시장을 의미한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선호단지 위주로 매도 희망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서울 전체 상승세가 지속 중이다”라고 말했다.

/전지원 기자 jiw13@